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 용 택



날씨가 가물고 늦어위가 기승을 부리자 만 가을은 가을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은 높고 눈이 부시게 푸르기만 합니다. 그 하늘 아래 나무와 풀들은 있는 힘을 다해 햇살과 바람을 빛아들이며 익어갑니다. 강변이나 논두렁이나 밭가에 구걸초 꽃이며 쑥부쟁이며 고마리 꽃이며 물봉선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강아지풀도 억새도 갈대도 바리구 풀도 수크령도 다 이삭을 피워냅니다. 밤송이들이 찍찍

가을꽃들이 피었습니다

벌어지고, 감은 빚은 얼굴을 세상에 내밉니다. 이산에 가보면 작은 오솔길에 밤과 상수리와 도토리들이 밟아래 푸른 헛갈입니다. 차를 타고 정신없이 달리다가 차창으로 언 뒷길을 주면 거기에 가을꽃들이 그렇게 피어 있습니다.

오! 저 꽃들 좀 봐라! 누가 가꾸지 않아도 우리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도,

나와 언제 그려마다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마치 지상의 모든 것들과의 굳은 약속인 양 그렇게 눈이 시리게 피어납니다. 낮은 산자락 작은 마을 어느 집에 머리가 하연

이 가을에 시 한편

할머니가 키 밭을 딛고 낮은 슬레이트 지붕 난간에다가 호박조각리를 한 개 한 개 넣고 있습니다. 오래 된 마을의 오래 된 저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고향 같은 굳은 약속입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일 터입니다. 저기 저렇게 꽃이 피어 있다고, 저기 저렇게 산과 들에 꽃들이 익어간다고, 저기 저렇게 노들이 푸른 하늘이 있다고, 저기 저렇게 노들이 붉게 사위에 간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일 터입니다. 크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친란하고 높은 지위

려 보면 거기 마른 풀잎이 작은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든 풀잎에 바람이 되는 사람이 또한 시인일 터입니다. 이 가을에는 여러분분들이 다 시인입니다.

가을바람이 부네요. 시 한편 살펴 보내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별에는 /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할 만큼 / 충분한 음식이 있음을 / 나는 믿습니다. // 모든 사람들은 /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사는 것이 / 가능함을 / 나는 믿습니다. // 우리들이 /

총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며 / 모든 이들이 / 똑같이 소중함을 / 나는 믿습니다. // 선한 기독교도와 / 선한 이슬람교도가 / 선한 유대교도와 / 선한 무신분자들이 있음을 /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선함이 깃들어 있음을 / 나는 믿습니다. // 만일 믿지 않는다면 / 어떻

가을엔 모두가 시인입니다

게 시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 날마다 / 목마름에 슬퍼 우는 아이들이 있음을 / 그리고 날마다 / 싸움을 벌이는 인종차별 주의자들이 있음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 어린아이들은 피부색과 상관없이 서로 어울려 뛰어놀고 있음을 / 나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 그리고 부디 이와 같은 / 희망을 간직한 이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 그것이 바로 내가 소망하는 것이며 / 동시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 진심으로 말입니다.’

벤자민 스바냐의 시-아름다운 소망-전문.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식



16세기 초의 베네치아는 요즈음의 파리나 뉴욕이 그렇듯 미술의 메카였다. 당시 베네치아에는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티치아노, 풍부한 색채감의 화가 지오반니 벨리니, 수수께끼의 상징으로 점철된 그림 ‘폭풍’을 그린 지오르지오네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베네치아 화가들은 다른 유럽지역의 화가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상과 재료를 사용했고, 그 결과 베네치아 화가들은 유럽의 회화를 선도하는 화가군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 당시 베네치아 화가들의 활동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화학회 소식지에 실렸다. 16세기 베네치아 화가들이 사용했던 환상적인 색상에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소식지에 따르면 당시 베네치아에는 벤데콜로리(Vendecolori)라고 불리는 물감 판매업자들이 성업하고 있었다. 벤데콜로리는 다양한 색상의 염료, 착색제, 물감 등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도매상이었다. 화가들은 벤데콜로리의 상점에서 물감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 화가들을 만나서

품에는 또 다른 비밀도 있었다. 유리와 도자기 제품들은 베네치아의 전통적인 특산물인데 이는 16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당시의 화가들이 유리 세공의 기법과 재료를 정통 회화에 응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역시 벤데콜로리의 역할이 컸다.

베네치아 화가들은 당시 유화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유리질의 착색제를 도입해서 한층 빛나고 생생한 색채감을 내는 데 성공했다. 또 당시 화가들이 물감이 마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탄산칼슘이나 유리를 사용한 데 비해 베네치아 화가들은 물감에 분쇄한 모래를 섞어 덧칠했다.

베네치아 출신으로 이탈리아에서 활약한 화가 로렌조 로토는 물감을 덧칠했을 때 투명한 효과를 주기 위해 레이크 안료를 사용했다. 로토의 그림은 엑스선으로 분석해보면, 연한 백색과 주홍색을 섞어 만든 핑크색 물감층과 투명한 적색 레이크 안료층이 교대로 칠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학자들이 형광현미경으로 그의 그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표면에 최소한 5개 층 이상의

16세기 베네치아 화가들의 화려한 비밀

새로운 기법이나 재료에 대한 정보를 얻어갔다. 말하자면 벤데콜로리의 상점은 가게뿐만 아니라 베네치아 화가들의 살롱 역할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또는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 같은 벤데콜로리가 없었던 것일까? 당시 대부분의 유럽 화가들은 물감을 악방에서 구해다 썼다. 벤데콜로리처럼 종합적인 화방이 있는 도시는 베네치아 외에는 없었다. 때문에 이탈리아 전역의 화가들이 벤데콜로리에서만 판매하는 다양한 물감과 재료를 구하기 위해 베네치아를 찾아왔다.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16세기 베네치아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과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다. 이러한 해상무역으로 화보하고 있었던 벤데콜로리들은 다양한 물감과 그림 재료들을 어렵지 않게 수입할 수 있었다.

16세기 화가들이 사용한 안료, 염료, 착색제 등의 생산과정은 화합물 추출, 유기반응, 무기반응, 유기금속 반응, 산화환원 반응 등을 포함하는 종합화학이었다. 벤데콜로리들은 이 화학 반응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화가들은 벤데콜로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회화에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었다.

16세기 베네치아 화가들의 화려한 화

투명한 적색 레이크 안료층이 덧발라져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화학비소로 만든 특이한 오렌지색상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한 군청색 역시 베네치아 화가들이 즐겨 구사한 색상들이다.

로토가 사용한 기법은 베네치아 화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다. 즉, 투명한 색상과 반투명한 색상의 유화물감을 번갈아 덧칠해서 특별한 효과를 얻는 것이다.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여러 새로운 안료를 시험한 끝에 각각의 물감층이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아래층의 색상을 가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색감을 내는 안료를 찾아낼 수 있었다. 벨리니는 하늘의 푸른빛에 노란빛이 나는 오렌지색을 조금씩 덧칠해서 미묘한 색감의 변화를 내기도 했다. 엑스분석법과 광학현미경 사진을 통해 화학자들은 벨리니가 사용한 주황색 물감이 안티몬과 철을 포함한 실리케이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의 베네치아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색채감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좋은 빛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가운데 과학적 노력으로 반영된 고유한 화법이 작품에 적용되었다. 그러한 노력이 마침내 예나 지금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베네치아의 미술문화를 꽂았다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표기한 정답을 따로 다른 데에 옮겨 쓰느라 많은 시간을 빼앗기

기 고

김 재 오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5일 개막돼 오는 11월9일까지 중외공원 비엔날레전시관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이 외에도 임방울국악제, 정율성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돼 광주의 기운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광주는 예·미·향·의·한의 도시로서 그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등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광주는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광주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지역

다면 광주·전남은 활기 넘치는 문화 중심지로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호남대 문화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오는 25일 ‘2008년도 한국은행 지역경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려 그 의의가 크다. 문화와 연계한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확률로 논의의 장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와 전남이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화인프라와 지역발전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은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광주·전남 지역은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2008년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되어 그 동안 많은 외래 방문객들이 광주·전남을 찾았으며 앞으로도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소득 수준이 높아갈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인프라, 상품들이 잘 개발되어 공급된다면 지역경제는 당당히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퀘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광주·전남의 문화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나간

지 선행 과제가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테마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나 문화관, 미술관을 건립함에 있어 하나를 짓더라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커뮤니케이터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 지역의 문화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 남도문화원형의 디지털화와 상품화가 필요하다. 전남은 전국에서 서울, 경북 다음으로 유·무형의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듯 풍부한 남도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하고 영상콘텐츠를 사업화할 때 우리지역의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호남대 문화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수능 문제지 회수 말고 수험생에 돌려주는 게 바람직

올 11월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예년처럼 문제지를 회수한다고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수능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데 굳이 문제지를 회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교육부는 혹시 채점이 잘못 되었을 경우 답안지에 표기한 것을 대조하기 위해 서고를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지와 답안지에 표기한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설자 같다고 해도 컴퓨터 채점이 우선시되지 않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표기한 정답을 따로 다른 데에 옮겨 쓰느라 많은 시간을 빼앗기

고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후 정답을 맞춰보고 점수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리 시험이 끝날 때마다 문제지를 수험생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년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도 좀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권의 관료화의 때문이 아닐까.

어차피 매시간 시험만 끝나면 문제지가 공개되는 현실이라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지를 회수하지 말고 수험생들에게 돌려줬으면 한다.

▲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정동

시 설

국제공연예술제 무산 ‘문화수도’ 맞나

제3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무산됐다. ‘사단법인 국제공연예술제’의 내부 갈등으로 이사장 등이 사퇴한 이후 추진 동력을 잃어 행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문화수도를 표방한 광주에서 국제공연예술행사가 내부 사정으로 열리지 못해 부끄럼이 짙어졌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야 한다. 시비와 국비 등 예산 13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데도 예술제를 무산시키고 말아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막칠한 것이다.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더욱 한심하다. 지난 3월 조진우 불협화음을 이유로 이사장과 일부 이사진이 사퇴비를 내놨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사 예술제를 개최하더라도 출연 예술단은 물론 예술제 자체를 저평가하는 행위에 처트를 키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행사를 개인에게 어렵다는 광주시의 혜명은 설득력이 없다.

후유증은 적지 않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출범해 지난해까지 두 차례 치러졌다. 대회가 무산되면 지원 받은 국비 등을 반납해야 한다. 내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해 예술제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광주연극협회 등 광주에 출신 산하단체들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 물밀작업에 나섰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사 예술제를 개최하더라도 출연 예술단은 의결해야 할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이번 행사는 예전에 다름없다.

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금리에 고물가를 감안하면 부채 증가는 상한 능력을 뛸어뜨리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부추기게 된다. 금융부채 증가는 가계의 재무 상환부담을 가중시킨다

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경기둔화로 예상보다 급증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이나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걱정이다.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개인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3월 말보다 1.6% 늘어났으나 금융부채는 3.1% 증가해 개인의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